

한전, ESG 경영 '글로벌 톱티어' 인정받았다

S&P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전력 유틸리티 '우수 기업' 선정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선도 기대

한국전력공사가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ESG 경영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지속가능 경영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전은 5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CSA)'에서 전력 유틸리티 분야 'Sustainability Yearbook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 Member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 전반에 걸친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S&P 글로벌은 매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 요소를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군별 우수 기업을 선정해 'Sustainability Yearbook'을 발표하고 있다. CSA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지표로 평가된다.

올해 평가에는 50개 산업군에서 약 9천20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848개 기업만이 Yearbook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력 유틸리티 분야에서는 Enel, Iberdrola, Acciona 등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을 포함해 총 26개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이 선정됐다.

한전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10점 상승한 76점을 기록하며 ESG 관리체계 고도화와 지속

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을 이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20년 공기업 최초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해 ESG 관련 주요 경영 현안과 전략을 심의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반의 방향성을 점검해 왔다. 이를 통해 ESG 경영 성과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전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제적인 송·배전망 구축과 전력망 안정성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전력 생산 및 수요의 분산화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를 선도하고 있다.

안전경영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김동철 한전 사장의 경영 방침 아래 2025년 '중대재해 ZERO'를 기록했으며 공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정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한전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ESG 경영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S&P 글로벌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 선정은 한전이 글로벌 수준의 ESG 관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산해 나가며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유틸리티 기업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지난 4일 나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특화거버넌스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확대 시동

후보 지구 발굴 기준 본격 논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5일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특화거버넌스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지구(농촌특화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후보군 검토기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생에너지지구 중심의 질서 있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전남도의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군 지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

기 위해 개최됐다.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한 유형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약해 농촌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과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적 에너지 전환 수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재생에너지지구 후보군 발굴을 위한 입지 적정성 및 수용성 검토 방향을 공유하고 시·군 적용을 통한 지정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주민 참여 기반

확보, 산업단지 연계 가능성 등 실행력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재생에너지지구는 단순한 발전시설 설치를 넘어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공간 관리 수단"이라며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전남도 농촌공간계획 지원을 전담하는 광역지원기관으로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지역 우수조달기업 세광플러스에 광주조달청, 조달청장 표창 전수

광주지방조달청은 5일 "2025년 지역 우수 조달기업"으로 선정된(주)세광플러스 임혜주 대표에게 조달청장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 서구에 소재한(주)세광플러스는 지난 2007년에 설립된 태양광발전장치 전문 제조기업으로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태양광 산업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지역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태호 기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협업 활성화 등 제안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5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세미나실에서 '2026년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와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 영위와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육성 판로 지원 및 정책자금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등을 설명하고 중기중앙회에는 노란 우산 공제 가입 고객을 위한 복지서비스 등 주



요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조동석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번 설명회

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태호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